

학생예술경연대회
학생문예경작대회
시가행진
음악·무용·동극·글짓기·사생대회
시대 흐름에 맞게
가요콩쿠르
학생 가장행렬
음악·무용·국악·미술·작문
국회의장상·문체부장관상
5·18 부통령상 신설
5·16 군사쿠데타
오른 페스티벌
전남도청에서 공설운동장까지
10만 인파
주부백일장
서석초등학교 강당
선배들의 무대
예능 장학생
30주년 전야제
시·군 대회

호남예술제 60년

예술 꿈나무 희망의 무대 지역민에게도 축제였다

1956년 어린이부 경연으로 출발

시가행진·가요콩쿠르·일반부 경연

‘5·16’ ‘5·18’ 때도 중단없이 개최

56만명 거처간 전국 대표 예술축제

광주일보사가 주최하는 ‘예술 꿈나무들의 등용문’ 호남예술제가 올해로 60살을 맞았다. 참여인원만 약 56만 여명에 이르는 호남예술제는 명실상부 광주·전남 뿐 아니라 전국을 대표하는 종합예술축제로 수많은 예술인들을 배출했다. 특히 광주·전남 지역 출신 예술인들이 호남예술제는 하나의 통과례였고, 대부분 호남예술제 경연을 통해 예술가로의 꿈을 키웠다.

무엇보다 번번한 문화예술 공연이 흔치 않았던 1970년대까지는 참가자들뿐 아니라, 지역민 모두의 축제로 자리잡았다. 특히 전남도청앞에서 광주공설운동장까지 이어지는 시가 행진은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다.

또 5·16, 5·18 등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한번도 중단 없이 행사를 치르며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호남예술제는 광주일보 전신인 전남일보 창사 3년 후 첫발을 뒀다. 학생예술경연대회(1954년 4월), 학생문예경작대회(1955년 9월)를 개최했던 전남일보는 단편적인 행사를 묶은 종합예술축제 ‘호남예술제’를 탄생시켰다.

1956년 첫 행사는 어린이부에서 출발했다. 경연 분야는 음악, 무용, 동극, 글짓기, 사생대회 등 모두 5개 분야였다. 참가자는 1000여명에 달했고 문교부 장관, 전남북지사, 충남북지사가 고문을 맡는 등 지방 최대 축제로 이름을 알렸다.

6월13일부터 3일간 열렸던 첫해 행사의 경연 장소는 동방극장(옛 무등시네마)과 서석초등학교 강당이었고 특히 동방극장 앞은 경연을 보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첫해 행사가 끝난 후에는 심사위원, 지도자, 일선 교사들이 참여하는 좌담회 ‘제1회 호남예술제 마치고’도 진행됐다. 이날 좌담회에는 사생부 심사위원이었던 오지호 당시 조선대 교수와 음악부 심사위원이었던 박기석 교수, 당시 수창초등학교에서 글짓기 교육을 맡았던 교사 김포천(전 광주비엔날레재단 이사장)씨 등이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아이들이 평온한 분위기에서 명

량한 기본으로 그림을 그려야한다.”(오지호) 등의 의견들이 오갔다.

이듬해에는 부통령상이 신설됐고 5회 대회 때는 중고 등부를 편성, 명실상부한 학생 경연대회로 자리잡았다. 5·16 군사 쿠데타가 터졌던 1961년에는 항상 5월에 열리던 대회를 11월로 연기해 개최했다.

1963년 8회 대회부터는 지역민들 전체의 축제로 자리잡았다. 대회 처음으로 시가행진이 열려 전남여고 강당에서 입장식을 가진 참가자들은 남원농악대와 학강초등학교 밴드에 맞춰 시가 행진을 벌였다.

9회 대회 때는 대학부와 일반부가 신설되면서 참가 인원이 8000여명에 달했고 11회 때는 무용, 음악 부문 결선 공연장인 동방극장에 1만여명의 인파가 몰렸다.

1970년 열린 15회 행사는 가장 성대히 치러졌다. 기존 경연 분야에 주부백일장, 가요콩쿠르, 가장 행렬이 추가됐고 광주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오른 페스티벌에는 무려 10만 인파가 운집했다. 특히 초·중·고 대학생들이 참여한 가장행렬은 가지각색의 분장과 재미있는 몸짓으로 관중들을 즐겁게 했다.

입상자들에 대한 격려도 이어졌다. 16회 처음으로 입상자 발표식을 가졌고 이듬해에는 예능 장학생을 선발, 장학금을 수여했다.

광복 30년이자 호남예술제 20주년이었던 1975년에는 전야제가 성대하게 치러졌으며 시·군별 대회도 처음으로 시작했다.

광주민중항쟁이 일어났던 1980년에도 행사는 멈추지 않았다. 일정을 10월로 연기했지만 대회 사상 처음으로 참가자가 1만명을 넘어섰다. 이듬해 제 26회 행사 때부터는 언론사 통폐합 조치로 전남일보를 이은 광주일보가 행사를 주관하기 시작했다. 1983년에는 3만명이 참여하는 등 역대 최고 참가자를 기록했다.

30주년이었던 1985년에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경연과 함께 호남예술제가 낳은 ‘정상의 얼굴들’을 초청, 특별 공연을 가졌다. 바이올리니스트 김남윤과 박평성, 피아니스트 서영화, 성악가 정애련, 무용가 김화숙·김복희씨 등이 무대에 섰다.

1988년에는 광주일보 부설 남봉미술관이 개관, 처음으로 호남예술제 미술 부문 입상작을 전시했다.

1993년부터 현재의 경연 체제가 자리잡았다. 경연 분야를 음악, 무용, 국악, 미술, 작문 5개 주요 부문으로 확정했으며 시대의 흐름에 맞는 분야를 신설했다. 미술 부문의 일러스트와 만화, 실용 음악이 대표적이다. 또 일반부를 폐지, 순수 초·중·고등부 예술 꿈나무 발굴에 힘을 쏟고 있으며 각 부문 최고상 수상자 가운데서 국회의장상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선정, 격려하고 있다.

호남예술제가 처음 출범할 당시만 해도 광주 시내에 개인 소유 피아노가 몇대 없었다. 교실도 부족하고, 예술 관련한 체계적인 교육도 받기 어려운 시절이었다. 하지만 예술가의 꿈을 꾸며 재능을 키우고, 경연을 통해 선보이며 꿈을 만들어간 이들이 있었다. 또 어떤 예술 꿈나무들이 자신의 기량을 펼치며 꿈을 키워갈지 기대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창사 63주년

“모든분들이 만족하십니다!”

NO.1 골프선불카드 에스골프 선불카드

전국 300곳 골프장 (제주,광주,전라 명문골프장)포함

그린피(세금포함)+카트비 전액지원

✓ 4월 입회고객 (100분한정) 특별 사은권 제공

에스골프 최홍림 홍보모델

광주지역 OPEN기념 100구좌 한정

광주지사OPEN기념 (한정100구좌)

입금계좌 : 국민은행 659001-04-042641 (주)삼성회원권

구분	가입금액	회원구성	이용기간	연 이용횟수	월 이용횟수	공동사항
S-싱글	350만원	기명 1인	3년	총 40회 (년 15회)	주중 3회 또는 주중 1회, 주말 1회	그린피(세금포함)+카트비 전액 무료지원
S-트윈	670만원	무기명 2인	3년	총 80회 (년 30회)	주중 6회 또는 주중 2회, 주말 2회	
S-VIP	1,320만원	무기명 4인	3년	총 160회 (년 60회)	주중 12회 또는 주중 4회, 주말 4회	

*VAT포함 금액입니다.

SG에스골프만의 혜택

1. 전국 골프장 이용가능
2. 비즈니스 활용(무기명 4인 - 최고 만족도)
3. 라운드 후 식음료, 캐디비만 내시면 됩니다.

문의전화 (광주지사)

062) 415-8811

본사 서울 1566-9799

지사 부산 (경남.부산지역) 051) 916-9700
경남 (경남.부산지역) 051) 916-7070
대전 (충남.대전지역) 042) 320-7800
대구 (경북.대구지역) 053) 248-6666
울산 (경남.부산지역) 052) 260-4575

Famile co

SAMSUNG MEMBERSHIP
삼성회원권BOOKING G B M S
MALL M S
골프부킹사이트
www.bookingmall.co.kr

SG 에스골프

한진관광 (타워텔리스점)

http://tp.kaltour.com

BOOKING H T M A L L S C G
호텔/콘도예약사이트
www.bookingmalls.com검색창에 **부킹몰** 을 치세요.

http://www.bookingmall.co.kr